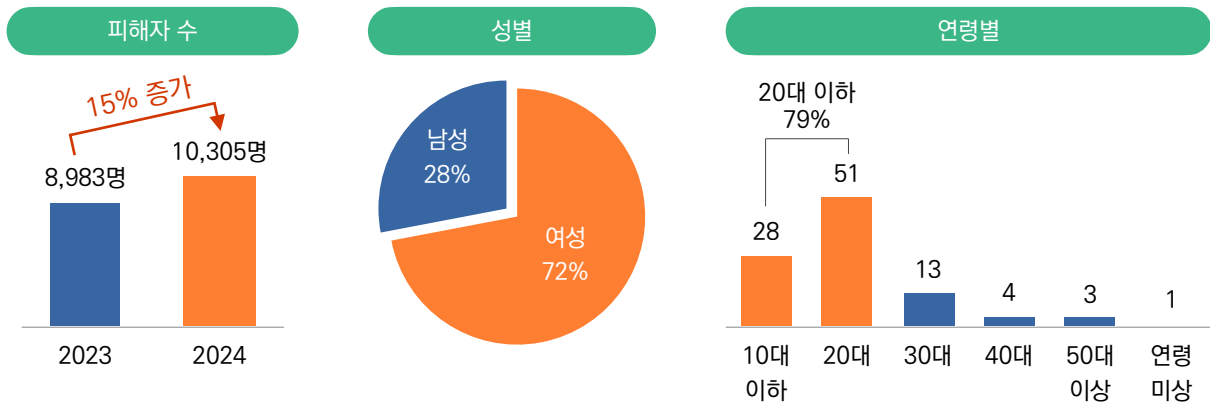




[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]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부분(79%)은 '20대 이하'!

-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'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'를 발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본다.
- 2024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 305명으로 전년 8,983명 대비 15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 피해자 분포를 보면 여성(72%)이 남성(28%)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, 20대(51%)와 10대 이하(28%)가 전체 피해자의 79%를 차지해 소셜미디어, 메신저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저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 및 성·연령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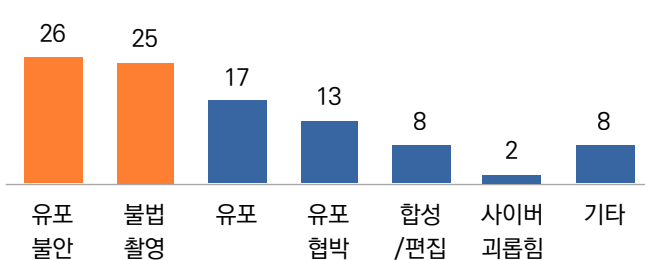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여성가족부·한국여성인권진흥원,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, 2025.0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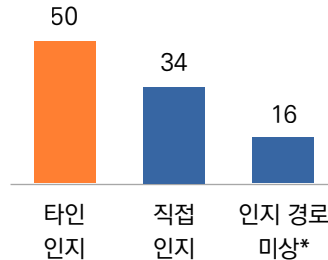
디지털성범죄 피해, '유포불안/불법촬영'이 가장 커!

-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, '유포불안' 26%와 '불법 촬영' 25%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이어 '유포' 17%, '유포 협박' 13% 등의 순이었다.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범죄와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였다.
- 한편 피해를 인지한 경로는 '직접 인지'한 경우(34%)보다 '타인을 통해 인지한 경우'(50%)가 더 많아, 피해 사실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.

[그림] 피해 유형 (2024, %)



[그림] 피해 인지 경로 (2024, %)



※출처 : 여성가족부·한국여성인권진흥원,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, 2025.04.

*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